

이 보고서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코아시아(0459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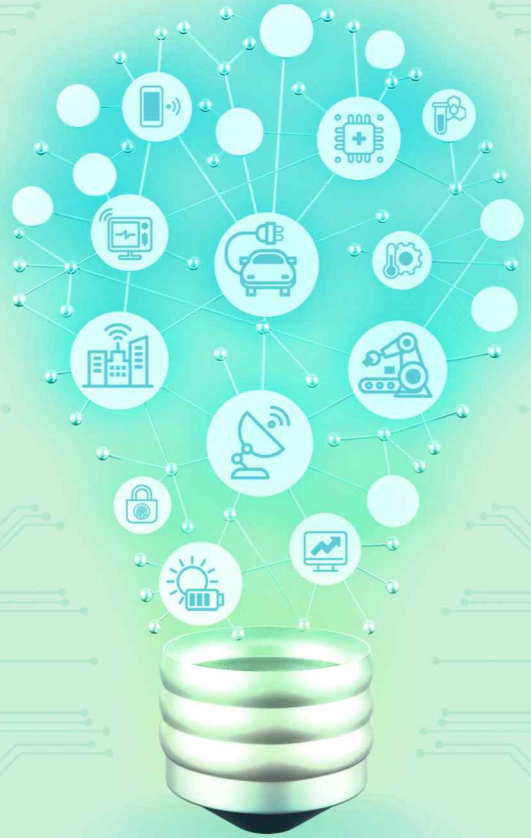
IT부품

요약

기업현황

재무분석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작성기관

(주)NICE디앤비

작성자

정다솜 책임전문위원

- 본 보고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을 받아 한국IR협의회가 기술신용 평가기관에 발주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18.10.25에 발간된 동 기업의 기술분석보고서에 대한 연계보고서입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2-13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IR협회

코아시아(045970)

IT 부품 사업부문의 지속적인 성장 및 시스템 반도체 사업 확장으로 신성장 동력 마련

기업정보(2021/12/21 기준)

대표자	이희준, 위종묵
설립일자	1993년 05월 25일
상장일자	2000년 08월 03일
기업규모	중견기업
업종분류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
주요제품	모바일 카메라 모듈, 광학렌즈, LED 등

시세정보(2022/01/04 기준)

현재가	10,250원
액면가	500원
시가총액	2,641억 원
발행주식수	26,314,876주
52주 최고가	14,900원
52주 최저가	7,010원
외국인지분율	3.54%
주요주주	
이희준 외 특수관계자	19.56%

■ 사업 다각화 및 그룹 시너지 강화를 통한 성장 전략 추진

(주)코아시아(이하 동사)는 파운드리 분야의 업력을 활용해 반도체 사업부문의 기반을 닦고, 2018년 이후 사업부문의 재편으로 현재 6개의 사업부문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동사 및 그 종속회사는 사업부문에 따라 시스템 반도체, IT 부품 유통, LED, 카메라 모듈, 광학렌즈, 신기술사업금융업으로 구분된다.

동사는 2019년 ‘에이치엔티일렉트로닉스’, 2021년 ‘(주)비에스이’를 각각 매각하였으며, 2019년 ‘(주)이즈웰’ 흡수합병, ‘CoAsia SEMI Ltd.(홍콩 본사)’ 설립, 2020년 ‘(주)씨앤씨아이파트너스’를 설립하였다. 이외에도 2021년 ‘(주)코아시아옵틱스’, ‘(주)코아시아넥셀’ 등을 종속회사로 편입하는 등 관계사 간의 시너지를 도모하고 있다.

■ 미래 핵심사업으로 시스템 반도체 부문 강화

동사는 자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plication Processor, AP) 브랜드 보유 및 웹기반 시스템 온 칩(System on Chip, SoC) 개발 플랫폼 구축을 통해 고객 맞춤형 SoC 솔루션을 제공하고, 반도체 칩 설계(Front-end/Back-end), 파운드리(Foundry), 패키징, 유통을 포함하는 턴키(Turnkey)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동사는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문을 미래 핵심사업으로 삼을 계획이며, 최근 ‘CoAsia SEMI Ltd.’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Design Solution Partner, DSP) 및 영국의 사물인터넷 서비스기업 Arm의 디자인 파트너(Approved Design Partner, ADP)로 선정되었다. 또한 ‘(주)코아시아넥셀’은 고객맞춤형 핵심 칩 설계 기술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고객사들의 니즈에 대응하고 있다.

요약 투자지표(K-IFRS 연결 기준)

구분 년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18	3,616.9	-14.7	44.0	1.2	-180.3	-5.0	-17.5	-5.5	136.3	-909	4,787	-	1.0
2019	4,388.7	21.3	204.9	4.7	122.8	2.8	5.8	3.8	129.2	279	5,513	22.6	1.1
2020	4,983.9	13.6	-38.0	-0.8	-91.5	-1.8	-6.1	-2.8	138.3	-271	5,179	-	1.8

기업경쟁력

사업부문 재편을 통한 경영효율 극대화

- 사업부문간 시너지 효과를 통한 경영 효율 향상 도모
- IT 부품 유통 : (주)코아시아, (주)코아시아씨엠
- IT 부품(LED, 광학렌즈, 카메라 모듈) 제조 : (주)코아시아 옵틱스, CoAsia ITSWELL VINA Co., Ltd.(베트남), CoAsia CM VINA JSC(베트남)
- 시스템 반도체 : CoAsia SEMI Ltd., (주)코아시아넥셀

DSP(Design Solution Partner)

- 시스템 반도체 토탈 솔루션 제공
- 반도체 칩 설계(Front-end/Back-end), 파운드리, 패키징, 유통을 포함하는 턴키 솔루션 제공
- 삼성, Arm 등과의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 웨기반 SoC 개발 플랫폼을 통한 효율적인 고객 맞춤형 SoC 솔루션 제공

핵심기술 및 적용제품

주요 기술 요소

- IT 부품
- 카메라 모듈 : 5M ~ 64M 화소 멀티카메라
- LED : Smart RGB LED 솔루션, 통신형 솔루션(LIN방식)
- 광학 렌즈 : 고화소 렌즈 비중 채택
- 시스템 반도체 솔루션
- 자체 AP 브랜드 보유, 웨기반 SoC개발 플랫폼 구축

매출 구성 및 주요 사업 부문

- 매출 구성
- 동사의 최대 매출처는 삼성전자이며 최근 3개년간 전체 매출의 75%를 상회함.
- 타 사업부문에 비해 IT 부품 유통 및 카메라 모듈 사업 부문의 매출 비중이 높음.
- 주요 사업 부문 : IT 부품 사업(카메라 모듈), 시스템 반도체 솔루션

시장경쟁력

카메라 모듈 시장 규모

연도	세계 시장규모	국내 시장규모
2020	315억 달러	39억 3,200만 달러
2025	446억 달러	58억 3,400만 달러

* 출처 : MarketsandMarkets

시스템 반도체 시장 규모

연도	세계 시장규모*	국내 시장규모**
2019	2,269억 달러	72억 6,080만 달러
2025	3,389억 달러	108억 4,480만 달러

* WSTS, IC Insights, 수출입은행 ** 국내점유율 3.2%(19년 기준)

최근 변동사항

시스템 반도체 본격화로 중장기적인 성장 기대

- 시스템 반도체 실적 가시화에 박차
-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문, 미래 핵심사업으로 집중 육성
- DSP 역할 중요성 증가
- 삼성 파운드리 공식 DSP 및 Arm 공식 DSP 선정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활동 현황

E

(환경경영)

- 동사는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환경경영을 실천하여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하였음.
- 동사는 기업 내 효율적인 환경관리를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겸임 담당자를 선임하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환경교육을 시행하고 있음.
- 동사는 온실가스 감축 전략의 수립 등의 활동을 통해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있음.

S

(사회책임경영)

- 동사는 다양한 복리후생을 도입하고 고충처리부서를 운영하며 임직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2021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우수기업'으로 선정됨.
- 동사는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약 36.7%으로 동 산업(C26, 전자부품 제조업)의 평균 여성 근로자 비율을 상회하고 있으며, 여성 임원을 채용하는 등 성별에 따른 고용 평등을 실천하고 있음.

G

(기업지배구조)

- 동사는 경영진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상근감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매년 감사교육을 실시하고 회사 정관 제39조를 규정하며 감사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음. 또한, 홈페이지에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공개하여 기업공시제도 의무를 준수하고 있음.
- 동사는 배당금 지급제도를 시행하는 등의 주주친화활동을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됨.

NICE디앤비의 ESG 평가항목 중 기업의 ESG 수준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활동 현황을 구성

I. 기업현황

사업 재편을 통한 경영효율 극대화 및 미래 성장 동력 마련

동사는 최근 3개년간 종속회사 매각 및 계열사간 합병 등을 통해 사업부문을 재편하였고, 최근 시스템 반도체 솔루션 부문 및 신기술사업금융투자 부문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 회사 개요 및 주요 연혁

동사는 1993년에 설립되어 IT 부품 및 시스템 반도체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으며, 2000년 8월 코스닥에 상장되었다. 동사는 7개의 마케팅센터(한국, 미국, 대만, 중국, 베트남, 일본, 독일)와 5개의 디자인센터(한국, 미국, 대만, 중국, 베트남)를 보유하고 있으며, 음향 사업부문의 매각, 광학렌즈 사업부문 편입 등을 통해 동사 및 그 종속회사는 현재 IT 부품 유통, LED, 카메라 모듈, 광학렌즈, 시스템 반도체, 신기술사업금융의 6개 부문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동사는 ‘(주)코아시아씨엠’과 함께 코아시아 그룹 내 IT 부품의 원재료를 국내외 업체로부터 구매하여 해외 생산 현지법인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또한 ‘CoAsia ITWSWELL VINA Co., Ltd.(베트남)’와 함께 고효율 및 친환경 LED를 연구개발,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 또한, 동사의 자회사인 ‘CoAsia CM VINA JSC(베트남)’는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공급 1차 벤더로 카메라 모듈 사업부문의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코아시아옵틱스’는 ‘CoAsia CM VINA JSC’와 함께 카메라 모듈-광학렌즈 통합 솔루션으로 삼성전자 갤럭시 모바일의 혁신 과제를 선도해나가고 있다.

나아가, 최근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문의 ‘CoAsia SEMI Ltd.(본사 홍콩, 이하 코아시아 세미)’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DSP 및 영국의 사물인터넷 서비스기업 Arm의 ADP로 선정되었다. 또한 ‘(주)코아시아넥셀’은 고객맞춤형 핵심 칩 설계 기술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고객사들의 니즈에 대응하고 있으며, 코아시아 그룹의 신기술사업금융 사업부문인 ‘(주)씨앤씨아이파트너스’는 반도체 분야에 특성화된 전문 투자회사로 시스템 반도체 사업의 지식재산권(IP) 확보 등 전략적 시너지 확장에 기여하고 있다.

[표 1] 부문별 사업현황

사업부문	대상회사	주요 사업의 내용
IT 부품 유통	(주)코아시아, (주)코아시아씨엠	IT 부품 원재료 공급 등
LED	CoAsia ITWSWELL VINA Co.,Ltd.	LED 패키지 및 모듈 제조, 판매 등
카메라 모듈	CoAsia CM VINA JSC	카메라 모듈 제조, 판매 등
광학렌즈	(주)코아시아옵틱스	광학렌즈 제조, 판매 등
시스템 반도체	CoAsia SEMI Ltd., (주)코아시아넥셀	반도체 설계, 시스템 반도체 디자인 솔루션 등
신기술사업금융	(주)씨앤씨아이파트너스	신기술 사업 투자 등

*출처: 동사 분기보고서(2021.09.), NICE디앤비 재구성

[표 2] 동사의 최근 3년간 주요 연혁

연도	내용
2019년	(주)코아시아로 사명 변경
	'에이치엔티일렉트로닉스' 매각 및 'HNT VINA(현, CoAsia CM VINA JSC)' 인수
	'쥬이즈웰' 흡수 합병
	'CoAsia SEMI Ltd.(홍콩 본사)' 설립
	'넥셀' 코아시아 그룹 신규 편입
2020년	삼성전자 파운드리 SAFE VDP(Virtual Design Partner) 공식 선정
	삼성전자 파운드리 SAFE DSP(Design Solution Partner) 공식 선정
	Arm ADP(Approved Design Partner) 공식 선정
	'L&S VC' 매각
	'쥬씨앤씨아이파트너스' 설립
2021년	(주)코아시아옵틱스(구, 디오스텍) 경영 참여
	'쥬씨앤씨아이파트너스' 신기술사업금융업 공식 인가
	'(주)비에스이' 매각
	중속회사 사명 변경 'CoA Silicon Corp.'(구, CoAsia SEMI US Corp.)
	'(주)코아시아옵틱스' 및 그 이하 연결실체 중속회사 편입
	'(주)코아시아넥셀' 중속회사 편입
	'CoAsia CM VINA JSC' 최대주주 '(주)코아시아옵틱스'로 변경

*출처: 동사 분기보고서(2021.09), NICE디앤비 재구성

[그림 1] 코아시아 그룹 조직도



*출처: 동사 제공 IR 자료, NICE디앤비 재구성

■ 카메라 모듈 사업 경쟁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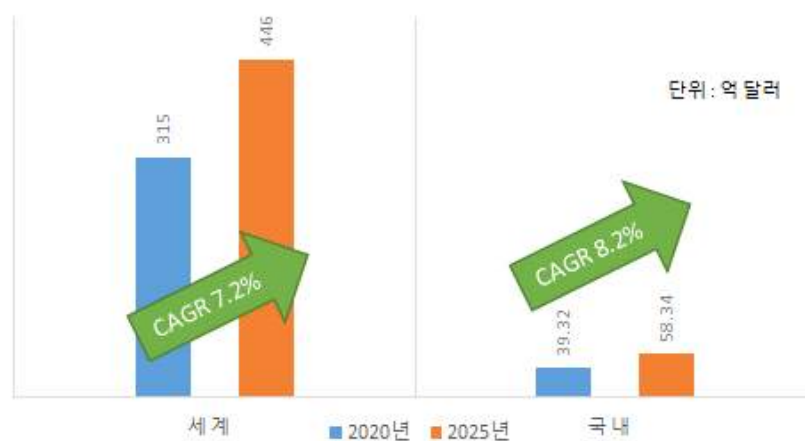
동사의 분기보고서(2021.09)를 기준으로 동사의 제품별 매출액은 카메라 모듈 80.0%, LED 13.8%, 광학렌즈 4.5%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광학렌즈 전문기업 (주)코아시아옵틱스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는 1차 협력사 ‘CoAsia CM VINA JSC’의 최대주주로 올랐다. 코아시아 그룹은 광학렌즈와 카메라 모듈이 결합된 ‘원 컴퍼니(One Company)’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그룹 내 카메라 모듈 사업의 수직계열화 구조 확립 및 사업 부문의 재편에 따라 카메라 모듈 사업 부문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카메라 모듈 시장은 스마트폰의 듀얼 카메라 적용 이후 고화소화, 고기능화 기술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였으며, 삼성 갤럭시 전후면 멀티카메라 공급 확대 등으로 동사의 IT 부품 사업부문의 꾸준한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 동시에 스마트폰 외 자율주행 자동차, AR, VR, CCTV 등 타분야로의 활용이 증가하여 해당 분야의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Marketsandmarkets(M&M)에 따르면, 모바일 카메라 모듈 시장은 2020년 전세계 시장 규모는 약 315억 달러로 추정되며, 연평균 7.2%씩 성장하여 2025년까지 약 446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중 국내 시장 규모는 2020년 39억 3,200만 달러에서 2025년 58억 3,400만 달러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2] 국내외 카메라 모듈 시장 규모



*출처: Marketsandmarkets, NICE디앤비 재구성

카메라 모듈은 렌즈 모듈과 이미지 센서, 자동 초점 조절이나 손 떨림 방지와 같은 특수 기능 구현을 위한 액추에이터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중저가 스마트폰에 탑재가 확대되고 있는 광학식 손떨림 방지(Optical Image Stabilizer, 이하 OIS) 액추에이터는 기존의 VCM(Voice Coil Motor)에 비해 원가가 높으나 고부가가치를 갖는다. 동사는 OIS 분야로의 신사업 진출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는 삼성 스마트폰 OIS 적용 확대에 따른 대응전략으로 파악된다. 또한, 광학렌즈 부문의 (주)코아시아옵틱스와의 수직계열화 및 OIS 부문의 신사업 계획으로 카메라 모듈을 포함한 IT 부품 부문의 사업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 시스템 반도체 사업 부문 확대 추진

동사는 파운드리 분야의 업력을 활용해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문의 기반을 닦고, 2019년 자회사 ‘코아시아세미’를 설립하여 시스템 반도체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문 강화를 위해 음향 부품 사업부문의 종속회사 ‘(주)비에스이’의 지분을 매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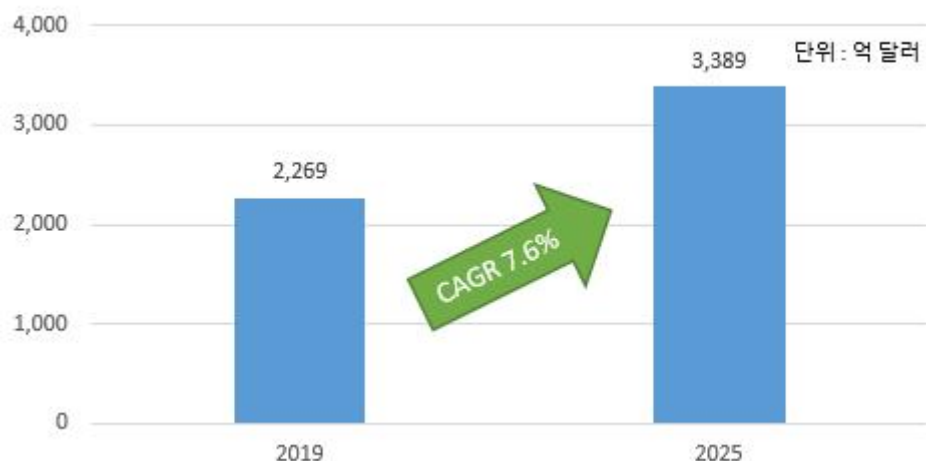
코아시아세미는 2019년 삼성전자 파운드리 SAFE VDP, 2020년 삼성전자 파운드리 DSP와 Arm의 공식 ADP로 선정되어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삼성전자 엑시노스 공식 파트너사인 (주)코아시아넥셀은 고객 맞춤형 SoC와 자율주행 국제규격 ISO26262 기반 Automotive AP에 특화된 칩 설계 기술력으로 자체 칩 제작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동사는 2020년부터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문 실적을 공개하고 있으나 해당 부문의 매출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으며, 주력 사업인 IT 부품 유통, 카메라 모듈 등 주요 사업부문에서 지속적인 매출과 이익을 창출하여 그룹사 전반의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

시스템 반도체 산업은 반도체 시장 및 파운드리 시장에 의존하는 특징이 있다. WSTS, IC Insights 등에 따르면, 2019년 전세계 시스템 반도체 시장 규모는 약 2,269억 달러로 추정되며, 연평균 7.6%씩 성장하여 2025년까지 약 3,389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중 국내 시장 규모는 전체 시장의 약 3.2%를 차지하며 2019년 72억 6,080만 달러에서 2025년 108억 4,480만 달러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3] 세계 시스템 반도체 시장 규모



*출처: WSTS, IC Insights, 수출입은행, NICE디앤비 재구성

동사는 자체 AP 브랜드 보유 및 웹기반 SoC 개발 플랫폼 구축을 통해 고객 맞춤형 SoC 솔루션을 제공하고, 반도체 칩 설계(Front-end/Back-end), 파운드리, 패키징, 유통을 포함하는 턴키 솔루션을 제공한다. TrendForce에 따르면,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삼성전자의 2020년 시장점유율은 약 17%로 TSMC에 이어 2위에 랭크되어 있으나, 최근 2나노 반도체 양산 계획을 바탕으로 삼성전자의 경쟁력 강화가 예상된다. 이에, TSMC-GUC(Global Unichip Corporation) 상생모델에 대응하는 삼성전자-DSP 생태계 내 디자인하우스로서의 동사의 성장이 기대된다.

■ 경쟁사 분석

카메라 모듈 분야에서 동사의 경쟁업체로는 (주)나무가, 해성옵틱스(주) 등이 있다. 주요 제품군을 비교하면, 3사 중 동사가 가장 많은 품목을 취급하고 있으며, (주)나무가 및 해성옵틱스(주)는 카메라 또는 렌즈에 집중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매출액을 비교하면 동사가 4,983.9억 원, (주)나무가 5,117.6억 원, 해성옵틱스(주) 1,177.8억 원으로 (주)나무가의 매출액이 가장 큰 수준이다. 매출액 증가율 측면에서는 전년대비 동사 13.6%, (주)나무가 41.3%, 해성옵틱스(주) -39.2%로 나타났고, 수익성 측면에서는 동사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이 -0.8%, (주)나무가 -0.4%, 해성옵틱스(주) -19.1%로 3개 업체 모두 영업적자를 기록하며 수익성이 열위한 수준이며 (주)나무가의 적자 폭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국내 모바일 카메라 모듈 시장 주요 기업 (K-IFRS 연결 기준)			
구분	(주)코아시아	(주)나무가	해성옵틱스(주)
주요 사업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	웹캠, 카메라 모듈 등	렌즈모듈, 카메라 모듈 등
주요 제품	모바일 카메라 모듈, 광학 렌즈, LED 등	카메라, 3D 센싱 모듈 등	AF 액추에이터, 렌즈/ 카메라 모듈, 보안용 렌즈 등
매출액	4,983.9억 원	5,117.6억 원	1,177.8억 원
매출액증가율	13.6%	41.3%	-39.2%
매출액영업이익률	-0.8%	-0.4%	-19.1%

*출처: 각 사 홈페이지 및 공시자료, NICE디앤비 재구성

또한, 향후 동사 사업부문의 매출향상이 기대되는 시스템 반도체 부문의 경쟁업체로는 (주)가온칩스, (주)에이디테크놀로지 등이 있다. 각 사의 엔지니어 수를 비교하면, 동사가 210명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사의 매출액은 (주)가온칩스 234.9억 원, (주)에이디테크놀로지 2,797억 원으로 동사가 가장 큰 규모로 나타났다. 매출액증가율 측면에서는 (주)에이디테크놀로지가 29.5%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매출액영업이익률 측면에서는 (주)가온칩스가 동사에 비해 수익성 측면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국내 시스템 반도체 설계 시장 주요 기업 (K-IFRS 연결 기준)			
구분	(주)코아시아	(주)가온칩스(비상장, 개별기준)	(주)에이디테크놀로지
주요 사업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	반도체 집적회로 제조	반도체 칩 및 설계용역
반도체 디자인 전문인력	210명	90명	130명
매출액	4,983.9억 원	234.9억 원	2,797억 원
매출액증가율	13.6%	-9.4%	29.5%
매출액영업이익률	-0.8%	8.4%	4.6%

*출처: 각 사 홈페이지 및 공시자료, NICE디앤비 재구성

SWOT 분석

[그림 4] 동사의 SWOT 분석



동사의 ESG 활동

동사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지속가능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5월 ‘ESG 경영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동사는 각 사업 부문별 담당위원 10인을 선출하고, 외부위원으로 글로벌 ESG 활동을 진행한 정해수 시놉스코리아 대표이사를 임명하였다. 향후, 동사는 관계사들과 ESG 경영위원회의 정책 및 전략을 기반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며, 시장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해 ESG 사례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동사는 환경(E) 부문에서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환경경영을 실천하여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한 바 있다. 또한, 기업 내 효율적인 환경관리를 위해 전담조직(ESG TF)을 구성하고 겸임 담당자를 선임하여 관련 부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환경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동사는 제품의 개발 및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국내외 환경 규제(RoHS, REACH 등)를 준수하여 관리하며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있다. 또한, 동사는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별도의 폐기물 처리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폐기물 발생량의 50% 미만을 재활용하고 있다. 이밖에도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집계하고 그 양을 제 3자(삼성전자) 검증을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다.



동사는 사회(S) 부문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작업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며, 안전보건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체교육(안전보건관리)을 실시하고 있다.

동사는 직원 편의시설인 휴게실과 구내식당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재원 주택보조수당, 자녀학자금 지원, 정시퇴근 캠페인, 유연근무제, 경조금 지급, 건강검진비 지원, 우수사원 포상, 단체보험 가입, 휴양시설 지원 등 다양한 복리후생을 도입하고 고충처리부서를 운영하며 임직

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동사는 일과 생활이 균형 잡힌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2021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동사는 사업의 이익과 성장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봉사활동 등)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약정을 체결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해 체계적으로 설계된 이론(Off-JT)과 실습(OJT) 훈련과정을 통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사의 분기보고서(2021.09)에 의하면 동사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약 7.7%로 대부분의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 동사는 남성 대비 여성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약 59.4%로 산업평균인 72.4%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나, 동사는 여성 근로자의 비율은 약 36.7%으로 고용노동부 자료(2021.02)에 따른 동 산업(C26, 전자부품 제조업)의 평균 여성 근로자 비율인 28.7%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또한, 여성 임원을 채용하는 등 성별에 따른 고용 평등을 실천하고 있다.

[표 5] 동사 근로자의 정규직 수 및 근속연수

성별	직원수(명)			평균근속연수(년)		1인당 연평균 급여액(백만원)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합계	동사	동 산업	동사	동 산업
남	147	8	155	4.4	9.3	37	69
여	79	11	90	3.9	8.5	22	50
합계	226	19	245	4.2	9.1	31	63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2021.02), 동사 분기보고서(2021.09), NICE디앤비 재구성



동사는 지배구조(G) 부문에서 윤리 담당자를 선임하고 노동행동 규범을 규정하고 있으며,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방지 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등의 윤리 교육을 실시하여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 또한, 동사는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정보통제관리 교육 등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내부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도를 운영하며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동사 임직원 업무 수행 시 이해관계 상충에 대한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으며, 협력사에 대한 공정거래 원칙을 공개하고, 협력사에 대한 공정거래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동사 분기보고서(2021.09)에 따르면 동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수관계인이 아닌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선임된 상근감사 1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동사는 2019년부터 매년 감사 교육을 실시하여 회계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한편, 동사는 감사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조직은 현재 구성되어있지 않으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 접근을 위하여 회사 정관 제39조를 규정하여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

동사의 지분구조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19.56%이며, 동사는 홈페이지에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공개하여 상장기업으로서의 기업공시제도 의무를 어느 정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동사는 배당금 지급제도를 시행하는 등의 주주친화활동을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II. 재무분석

2020년 매출 성장세 계속, 미래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며 시스템 반도체 집중 육성

삼성전자향 매출이 동사의 실적을 견인하며 최근 2개년 매출 외형이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차기 주력 사업인 시스템 반도체 사업 부문의 성장을 위해 음향사업 부문을 매각하는 등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통해 지속 성장 의지를 나타냈다.

■ 2020년에도 삼성전자향 매출이 동사의 매출을 견인

동사는 1993년에 설립되어 기업집단인 코아시아 그룹에 속해 있으며, 동사가 속한 코아시아 그룹의 전신(모태) 기업은 대만 'CoAsia Electronics Corp.'으로, 반도체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디자인 서비스(ASIC, Foundry, SoC Platform Based Design Service) 사업을 위해 지난 1997년 동사의 이희준 대표이사에 의해 설립되었다. 현재 'CoAsia Electronics Corp.'는 Microsoft, 삼성전자의 중화권 공식 파트너사이며, 대만 주식 시장(Taipei Exchange, Code: 8096)에 상장되어 있다.

동사는 시스템 반도체, IT 부품 유통, LED, 카메라 모듈, 음향 부품의 5개 사업 부문으로 나누어 운영되었으나, 최근 사업 재편으로 시스템 반도체, IT 부품 유통, LED, 카메라 모듈, 광학렌즈, 신기술사업금융업 6개 사업부문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0년 연결 기준 사업 부문별 매출 구성은 카메라 모듈 42.8%, IT 부품 유통 32.8%, 음향부품 15.0%, LED 8.4%, 시스템 반도체 1.0%를 각각 차지하였고, 수출과 내수 비중은 각각 86.4%와 13.6%로 수출 비중이 높은 수준이다.

동사의 최대 매출처는 삼성전자로 최근 3개년간 75%를 상회하는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등 높은 매출 의존도를 지속하고 있어 삼성전자향 매출이 동사의 매출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속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음향 부품 사업부 매각

LED 사업의 경우 친환경 자동차 분야에 적용 확대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카메라 모듈 사업은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공식 1차사로 삼성전자 모바일 사업에 영향을 받고 있다. 동사는 LED, 카메라 모듈, IT 부품 사업부문에서 견조한 매출 실적 달성하고 있으며, 2019년과 2020년 21.3%, 13.6%의 매출액증가율을 각각 기록하며 외형 확대되어 2020년 4,983.9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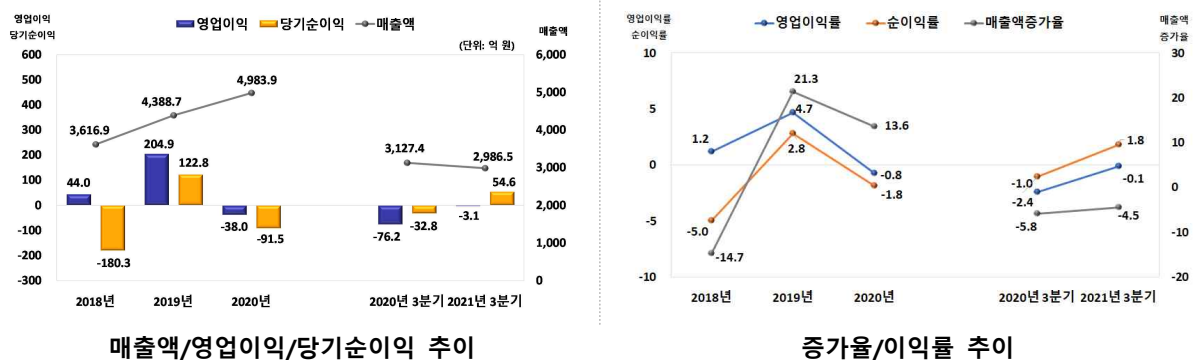
차기 주력사업인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문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음향부품 사업부문인 자회사 (주)비에스이를 매각하면서 해당 사업부의 매출 축소 등으로 2021년 3분기 누적 매출액은 2,986.5억 원에 머무르며 전년 동기 대비 4.5% 하락했다.

■ 2020년 적자전환 하였으나, 2021년 3분기 영업적자 폭 축소

동사의 자회사인 (주)비에스이의 음향부품 사업부와 (주)이즈웰의 LED 사업부의 손익은 양호했으나, 시스템 반도체 사업(코아시아세미)이 아직까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해 취약한 수익성을 나타냄에 따라 2020년 영업손실 38억 원을 기록하며 영업수지가 적자전환 하였고, 외환차손 및 금융비용 등 영업외수지 적자로 인해 당기순손실 규모는 91.5억 원을 기록하며 손실 폭이 확대되었다.

한편, 2021년 3분기 누적 영업손실 규모는 3.1억 원으로 전년동기 누적 손실 76.2억 원 대비 크게 축소되었고, 46억 원의 관계기업투자주식이익 및 금융 이익 등 영업외수익의 영향으로 54.6억 원의 누적 순이익을 기록하며 흑자전환하였다.

[그림 5] 동사 연간 및 3분기(누적)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12), 동사 분기보고서(2021.09), NICE디앤비 재구성

■ 2021년 3분기 재무구조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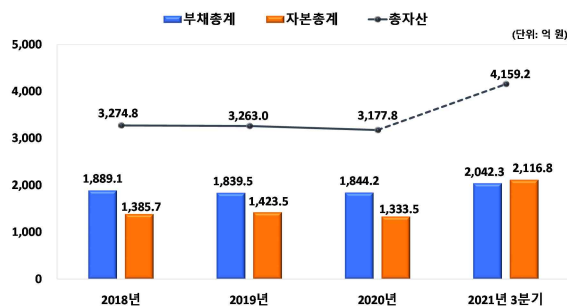
신규 사업 확장에 대한 자금 투입 등 부채부담이 증가하며 동사의 주요 안정성 지표는 2020년 말 기준 부채비율 138.3%, 자기자본비율 42.0%를 기록하며 다소 열위한 수준을 기록했다.

이후, (주)코아시아넥셀 등 신규 편입한 종속기업의 영향으로 자본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2021년 3분기 말 부채비율 96.5%, 자기자본비율 50.9%를 기록하며 재무구조가 개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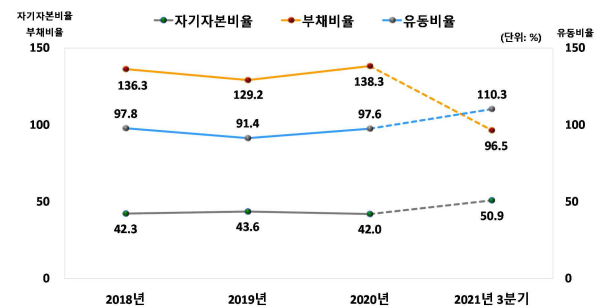
한편, 동사가 신규 사업인 시스템 반도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 사업 특성상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전까지 영업적자 상태를 견뎌내야 하지만, 음향사업 지분 정리로 300억 원 이상의 현금이 유입되어 일정 수준의 유동성이 확보된 점은 긍정적이다.

[그림 6] 동사 연간 및 3분기(누적)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산/부채/자본 비교



자본구조의 안정성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12), 동사 분기보고서(2021.09) NICE디앤비 재구성

[표 6] 동사 연간 및 3분기(누적) 요약 재무제표

(단위: 억 원, K-IFRS 연결 기준)

항목	2018년	2019년	2020년	2020년 3분기	2021년 3분기
매출액	3,616.9	4,388.7	4,983.9	3,127.4	2,986.5
매출액증가율(%)	-14.7	21.3	13.6	-5.8	-4.5
영업이익	44.0	204.9	-38.0	-76.2	-3.1
영업이익률(%)	1.2	4.7	-0.8	-2.4	-0.1
순이익	-180.3	122.8	-91.5	-32.8	54.6
순이익률(%)	-5.0	2.8	-1.8	-1.0	1.8
부채총계	1,889.1	1,839.5	1,844.2	2,335.1	2,042.3
자본총계	1,385.7	1,423.5	1,333.5	1,450.0	2,116.8
총자산	3,274.8	3,263.0	3,177.8	3,785.1	4,159.2
유동비율(%)	97.8	91.4	97.6	95.8	110.3
부채비율(%)	136.3	129.2	138.3	161.0	96.5
자기자본비율(%)	42.3	43.6	42.0	38.3	50.9
영업현금흐름	193.9	314.2	-88.0	-115.7	357.7
투자현금흐름	-517.2	-9.8	-160.1	-185.4	-337.9
재무현금흐름	234.1	-385.8	294.7	366.4	32.2
기말 현금	496.9	378.5	439.5	461.1	506.5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12), 동사 분기보고서(2021.09)

Ⅲ.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차기 신사업인 시스템 반도체 본격화로 중장기적인 성장 기대

시스템 반도체, IT 부품 유통, LED, 카메라 모듈, 음향 부품의 5개 사업부문을 운영했으나, 음향 부품 사업부를 정리하고 광학렌즈,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신설하는 등 6개 사업부문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통해 2차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 시스템 반도체 실적 가시화에 박차

보도자료(THEELEC, 2021.05)에 따르면 동사는 차기 주력 사업인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문을 미래 핵심사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으로 (주)코아시아넥셀의 엑시노스오토를 비롯한 국내외 글로벌 친환경 자동차 기업들의 핵심칩 개발 참여와 코아시아세미의 삼성 파운드리 글로벌 프로젝트 개발 참여를 통해 2021년부터 본격적인 성장세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사는 수주부터 설계, 생산관리, 유통까지를 아우를 수 있는 일관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경쟁력으로 내세워 시스템 반도체 사업 실적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동사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모델은 파운드리(위탁 생산) 분야의 세계 1위 업체로 거론되는 타이완의 TSMC와 GUC(글로벌유니칩)의 역학관계와 유사하다.

TSMC가 조성한 'VCA(Value Chain Aggregator)' 생태계에서 GUC가 차지하는 만큼의 존재감을 삼성전자의 'DSP' 생태계에서 발휘하겠다는 것으로, VCA나 DSP 생태계는 고객으로부터 제품을 수주해 설계하는 역할을 파운드리 업체가 아닌 생태계 구성원들이 맡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러한 전략은 파운드리 업체와 경쟁 관계가 될 수도 있는 발주사들의 영업비밀 유출 우려를 최소화해 파운드리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고안된 아이디어이다. 동사의 근간 자체가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유통 대리점이었던 까닭에 동사는 이같은 DSP 생태계 내에서 고객으로부터 제품을 수주받아 설계한 뒤 생산 공정을 관리하고 대리점을 거쳐 최종 수요처까지 납품하는 모든 과정을 아우를 수 있다고 밝혔다.

■ DSP 역할 중요성 증가, 삼성 파운드리, Arm의 공식 DSP에 선정

삼성전자는 100조 원 규모의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대만의 TSMC에 이어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내년 상반기 중 3나노 공정 등 미세공정 기술력을 확보하고 파운드리 사업부로의 대규모 투자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동사는 2020년 4월 자회사 코아시아세미를 통해 삼성 파운드리 공식 DSP로 선정되고, 2020년 6월 영국 반도체 설계자산 기업 Arm의 공식 DSP로 선정된 바 있으며, 특히 Arm의 파트너 자격에는 턴키 SoC(시스템 온 칩) 디자인을 포함하고 있다.

대만 TSMC의 DSP로 자리 잡은 GUC의 지난해 매출액은 4억 8,400만 달러(5,270억 원)인 반면, 동사는 2020년 처음 시스템 반도체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TSMC처럼 팹리스 고객사를 늘리는 과정에서 DSP 역할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동사가 향후 대만의 GUC처럼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확장에 중요한 역할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DS투자 증권	Buy	16,000원	2021.03.10
	■ 최대 5개 이상의 턴키 및 최대 10개 이상의 NRE(Non Recurring Engineering · 초기 개발) 프로젝트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자회사인 넥셀과 코아시아세미의 기술력이 동사의 경쟁력으로 2021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		
하나금융 투자	Not rated	-	2021.01.07
	■ 시스템 반도체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2월 현재 시가총액이 3,000억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대규모 프로젝트가 실적에 반영되기 위해선 수주를 받는 시간도 소요되지만 코아시아는 버틸 수 있고 확장할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 ■ 삼성전자 파운드리 DSP 기업들과 생태계 구축에 힘써 엔지니어 풀을 확보했으며, 유통 사업을 통해 잠재 고객사의 수요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동사의 강점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그림 7] 동사 1개년 주가 변동 현황



*출처: 네이버금융(2021년 12월 21일)